



2008 | 7+8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한없이 물러와 부서지는 하얀 물결들 속에서

경쾌한 리듬을 찾아 흥얼거려본다.

그래, 너는 이렇게 부드러운 파도에 몸을 맡겨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출렁이는 네 길 따라 지친 내 마음, 가벼이 실어 보내자꾸나.



2008 Vol.03

Contents

04 기획취재

전화 한번으로 국민고충 해결하는 행정민원 해결사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찾아서

행복한 사회

10 희망블룸 up!

왔노래 싸웠노래 이겼노래 -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임대조건 조정

12 해피투게더

이주민의 삶에 희망을 새기는 사람들
- 안산 이주민통역지원센터 김미연, 히시게 씨

16 우리가 간다

국민의 가려운 곳, 찾아가서 긁어준다 - 현장민원상담 서비스

18 바로 이 사람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꿈꾸대!
- 서울글로벌센터 관장 앨런 팀블릭

20 청렴예찬

신속, 친절, 안전의 선전 관세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 - 관세청

즐거운 세상

24 즐거운 메시지

소비자는 진정 왕인가?

26 오감여행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파주, 연천, 철원

30 트렌드 읽기

일만 열심히 하드워커 NO, 취미생활도 열심히 쿨워커 OK!

32 생활법률 110

기관장배 축구대회 훈련 중 사고도 산재인정? - 산업재해 보상의 요건과 범위

34 해외 반부패동향

수자원 분야 부패가 수십억 인명 위협한다

36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뒤늦게 찾은 남편의 명예... 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인정

37 ACRC 카툰

온라인 행정심판

38 Thanks Letter

"당신의 땀방울과 우리의 간절함이 모여 해냈습니다!" 外

40 ACRC 소식

42 독자 코너

발행일 2008년 8월 8일(격월발행, 통권3호, 비매품) | 발행인 양건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편집 김덕만 | 주소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 | 전화 02-360-2725 | 팩스 02-360-2699 |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획·디자인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외부 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번으로 국민고충 해결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글 김은미 * 사진 김민정

110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KOIS
114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주년 기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0

‘여권은 어디서 만들지?’ ‘재산상속 취득세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지?’ 행정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 문의하느라 온종일 진땀을 흘렸던 경험은 없는지... 이런 국민의 고충을 쉽게 상담·안내해 주는 곳이 있다. 바로 전화 한통화로 행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다.



충남 공주시의 어느 식당 앞. 깨진 보도블록에서 쥐가 나와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식당 주인은 막상 어디에 보수요청을 해야 할지 몰라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던 중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았다. 며칠 후 시청에서 식당 앞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해주었고, 쥐와 마주치는 불상사도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곳에는 80여 명의 상담사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대기 중이다. 이 콜센터에서는 남녀노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전화’를 이용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한다.

콜센터 관계자는 “ARS 자동응답방식이 아닌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단순사항은 직접 안내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은 전국 33개 해당기관으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정부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과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 고충, 친절함 상담사가 해결해드려요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상담사 유선우^{38세} 씨. 그녀는 얼마 전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인 민원인이 이곳 콜센터를 통해 무료컴퓨터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감사전화를 받았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곳이 없는지 상담을 해왔다. 유 상담사는 “정부 민원에 대해 상담하다 보니 마치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 같아 자긍심이 크다”며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 중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행정안내를 받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평균 약 6,0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애로사항도 있다. 상담사 이해정^{24세} 씨는 “전화라는 매체를 이용하다보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전화나 음주 후 화풀이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무작정 대통령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차근차근 물어보며 친절하게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상대방도 차분히 상담에 응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고충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 민원인에게 상담사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독특한 상담센터, 110

현재 약 160만 명의 민원을 해결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전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정되었던 콜센터 운영시간이 사용자인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수요에 맞춰 이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상담을 시작해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세태에 맞추어 외국어 통역서비스도 해준다. 한국관광공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민원인과 상담사, 통역자가 3자 동시 통화방식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정부민원콜센터. 국민들이 수화기를 들어 ‘110번’을 누르는 순간,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해본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렇게 이용하세요!

대표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상담안내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모든 정부관련 업무 중 민원에 대해 직접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중계

상담안내시간 : 평일 -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야간 및 공휴일 - 상담예약을 하면 다음 근무시간

에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드립니다.)

이용요금 :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

해외이용 : 해외에서는 82-2-2012-9110번



스쿨존 지켜주세요

이혜정 상담사

민원인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담내용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민원을 100%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말 누구보다 더 속상한 건 해당 상담사일 겁니다.

한 민원인은 학교 앞 도로 때문에 아이들을 맘 놓고 학교에 보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표시가 그려져 있으며 안전사고지대여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다른 학부형이 구청 측에 1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스쿨존이 형성되지 않고 현수막만 걸리는 실정이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그 학부형은 아이들이 그 길을 거쳐 학교에 가지 않게 집을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부형들에게도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자신처럼 이사를 가는 방향이 현명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학교 앞에서 큰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민원인 자녀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고 너무도 충격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은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두고 넘어 갈 수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항상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내용을 접수하고 이전처럼 미흡한 해결 방법이 제시될 경우에는 조금 더 상위기관에 민원을 접수해 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접수내용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접수한 기관에 수시로 전화 확인하여 진행사항을 전달 받고 체크했습니다. 드디어 3일 만에 모든 기관에서 처리완료 답변이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해피콜을 시도했습니다.

민원인은 사뭇 밝은 목소리로 “일이 잘 처리되고 있어 오늘 해당 건으로 구청장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일단 스쿨존 안의 주차선이 지워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해결되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학부형의 책임만이 아닌 학교와 지역 교육청, 구청 등 모든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소중한 생명의 희생 없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미선 상담사

추운겨울, 저는 나이 지긋한 50대 중반의 민원인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내가 이런 애길 여기다 해도 되나요?”

연세가 지긋한 민원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110번으로 전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다치신 민원인은 포항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전 피검사 시, 다친 다리보다 간치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15일간 간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활의학과 병동으로 옮겨 다리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병동 이전 없이 2개월간 내과 병동에서 재활의학과 다리치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평소 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셨는데, 재활의학과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이 병원 측에 서류 정정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선 정정해 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내과 병동에 입원했으나 치료는 15일만 내과치료이고 2개월가량 재활의학과치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병원 측에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나,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정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웠고, 설상가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 없다며 정부에선 수급 금액도 감해져 지급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민원인 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청 담당자 [보건소 관련](#)과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자에게 데이터 이관 처리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남구청 보건소의 담당자분이 대학 병원에 조치를 해 주어 제대로 된 입원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자 또한 보험회사 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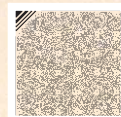
며칠 후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가씨~ 고맙워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못 받았던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잘 해결되었다는 말 한마디로 밥 먹은 듯 배부를 정도로 마음이 뿌듯하고 벅차옵니다. 110번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항상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happy



행복한 사회

희망불룸 up!

해피투게더

우리가 간다

청렴예찬

바로 이 사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임대조건 조정

| 글 박행수 용인흥덕지구 주민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 그 속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권익을 찾아가고 있을까.
박행수 씨의 수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한층 더 높여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약상을 들어본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박행수 씨

대가족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한 민간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2006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선을 보였으며, 2007년 2월에는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에서 두 번째로 분양하였다. 흥덕지구는 2009년 7월 개통예정인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수월하고, 디지털 시범도시로 개발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 예정인 공공택지지구다. 특히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보유세가 없으며 1가구 2주택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청약자의 입장에선 큰 매력으로 보였다.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가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한 지자체와 건설사를 믿으며 청약하였다.

기댈 곳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그러나 당점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8년 2월초 인터넷카페 모임인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계약자들이 감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가 건설인가 대비 총 190%의 이익을 챙겨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중대형 임대아파트 분양이 법 규정도 없이 허술하게 추진되면서 건설사가 이를 악용하여 3,0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계약자들은 500~600여 만원의 위약금과 청약자격을 날려버리고 계약을 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 납부 전까지 더 기다려야 옳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임대조건 조정을 위해 함께 애쓴 운영위원들. 왼쪽부터 이중수, 박행수, 기현승

우리 계약자들은 주변 분양아파트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임대조건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설사는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조정불가 통보를 하였다. 그리하여 분양을 승인한 용인시는 물론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2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폭리에 따른 임대조건 조정을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은 인정하지만, 중대형에는 적용할 임대주택법이 없어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그 후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방송 3사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 기관에 건설사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임대주택법 입법 미비사항 등의 문제점을 고발하였다. 2008년 3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빛 좋은 개살구, 중대형 임대아파트’란 제목으로 보도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성과를 얻을 순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단체해지를 선택하고 260여 명이 단체해지 카드로 임대조건 조정을 요청하며 건설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고만 할 뿐, 임대조건 조정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단체해지에 동참한 계약자들은 위약금과 청약자격을 날리면서 모두 떠나기로 하고 계약서 반납과 함께 계약 해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것이 쇠줄일 줄이야

이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넣었던 민원이 2008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번호 1AA-0804-043281 되었다. 고충처리부 주택민원 담당인 박승호 조사관과 상담을 하면서 임대주택법의 미비점과 건설사의 3,000억 원 폭리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줄곧 실망만 한 터라 큰 기대를 갖진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수집하였던 자료들을 조사관에게 전달하면서, 점차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포기하지 말라’는 박 조사관의 말에 힘을 얻어, 우선 흠어졌던 계약자 20명을 찾아 민원접수 결과와 조사관의 열정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먼저 9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한 다음, 확

보된 200여 명의 계약자 명부를 대조하며 한집 한집 통화하면서 성향을 파악하는 등 부지런히 땀 흘린 결과, 협상과정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늦어도 5월말까지는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박 조사관의 약속을 믿고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협상을 준비하였다.

2008년 6월 5일 오후 3시, 용인시청 시민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용인시청 주택계장, 담당자, 건설사 대표^{4명}, 계약자 대표^{4명}의 첫 만남이 있었다.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협상 대표로서 준비해간 모두발언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계약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으로 임대조건을 조정해주길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후로 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유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임대조건 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다.

2008년 6월 19일 협상 종료.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임대조건 조정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던 건설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적절한 중재 노력, 누적된 350여 세대의 해지자, 주변 중대형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임대조건 조정이 없을 경우 계약유지자들의 추가 해지, 해지물량 재분양 등을 이유로 임대조건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다. 조정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59세대에서 970억 원에 이른다. 세대 당 1억 1,390만~1억 4,660만 원으로 결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낸 이번 임대조건 조정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중심에 우리 계약자들과 맞은바 소임을 다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승호 조사관이 있었으며, 건설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

이주민의 삶에 희망을 새기는 사람들

안산 이주민통역지원센터

김미연, 허시게 씨

| 글 최미현 * 사진 장병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로 살기란 그다지 녹록치 않다. 주변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움츠러들기 일쑤고, 친구들과 취미생활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임금을 떼이거나,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대체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두 여인이 나섰다. 안산시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미연, 히시게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미연(좌), 히시게(우) 씨의 이주민통역센터에서의 일과는 이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 안과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selamat datang!”슬라맛 님땅, 어서오세요

“saya bisa bantu apa ya?”사야 비사 반투 아빠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월 27일 오후 2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내 이주민통역지원센터☎1644-7111에서 근무하는 김미연40세 씨의 하루는 유창한 인도네시아 인사말로 시작된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8개국의 이주민들을 위한 통역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진료, 출입국 관련사항 상담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센터 내부에는 자리마다 각 나라 국기가 꽂혀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들이 상담을 맡고 있다.

그러나 김미연 씨만은 예외다. 선교회인도네시아 근로자교회 간사로 일할 때 익힌 인도네시아어로 직접 외국인 통역을 맡고 있다. 한국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싶어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선교회에서 인도네시아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난 그녀는 그후, 노동부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유독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그녀는 센터 내에서도 든든한 지원자이자, 인기인이다. 그런 그의 곁에는 항상 몽골 통역상담사 히시게몽골, 30세 씨가 따른다. 국적은 다르지만,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녀들. 히시게 씨는 한국에 온지 3년째로, 4개월 된 아이의 엄마이자,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몽골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을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녀. 졸업 후, 한국으로 들어와 몽골인 남편을 만나고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되었다. 직장과 학교 그리고 엄마의 역할까지, 이뤄내야 할 것도, 참아내야 할 것도 많은 시기. 타인의 일까지 신경쓴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터다. 그러나 타국에서 기댈 곳 없는 몽골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 생각에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 지원했다. 센터를 통해 지원을 해주는 위치에 있지만 그녀 역시 그들에게 큰 힘을 얻고 있다. 먼 이국땅에서 내지인을 만나는 것만큼 큰 위안이 있을까. 서로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히시게 씨는 무척이나 적극적인 사람이예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상담자의 회사에 전화하면, 외국인이라 무시할 때도 있는데 주눅 들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대단한 친구구나 싶어요.”

이주민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대중교통 이용과 증상에 따른 병원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각종 언어 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히시게 씨.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그 사람 존재가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며 미간을 살짝 찌푸린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주민통역지원센터 내부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도움 준비가 되어 있다는
히시게 씨와 김미연 씨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는 희로애락 주말에도 쉬지 않고 수십여 통의 전화와 방문 상담을 받고 있는 그녀들.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나냐는 질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에 전화했을 때!”라고 답한다.

“전화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면 목소리를 차분하게 해서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잘 안될 때가 많지요.”

다짜고짜 화를 내는 상대방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건만, 김미연 씨의 이야기에 히시게 씨도 고개를 끄덕인다. 끈질긴 인내와 동지애가 없다면 이겨내기 힘들 일이다. 상담 중, 민감한 부분은 센터와 협약을 맺은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가 맡는다.

그녀들의 상담 사례들은 무궁무진하다. 히시게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



례는 돈도 갈 데도 없는 외국인 임신부를 임신부 기관에 연결해 줬을 때였다.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사례이기도 했다고. 김미연 씨 역시 지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힌다.

“임금을 못 받았다고 상담 받았던 친구가 월급이 나왔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하면 흐뭇하죠. 안타까웠던 일도 많아요. 약물중독 **다이어트약**으로 입원시킨 친구가 있는데, 단순한 약물중독이니 나오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입원시켰는데 회사에서 저에겐 알리지도 않고 출국시켰어요. 입원하던 날 절 쳐다보던 큰 눈망울이 잊히질 않아요...”

밀착형 다문화정책 이뤄나가는 외국인주민센터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있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지난 3월 거주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생긴 보금자리이다. 김미연 씨는 그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 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 더불어 자존감도 느끼지 않겠어요? 또 자기의 힘든 점을 하소연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표정도 밝아지고 그야말로 살맛나겠죠. 하하.”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거주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사업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결혼식, 문화공연 등 행사 용도로 활용되는 3층을 비롯, 한국어교육실, 컴퓨터교육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2층, 무료진료센터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기업은행 송금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1층과 각종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지하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가 거주이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9월에는 다문화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일반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그들도 고국의 인기소설을 읽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나라의 동화책도 읽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들도 그들의 거리에서 그들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음식과 한국인을 대할 때의 반가운 마음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일지 모른다. 우리는 말로만 다인종, 다문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들도 그들의 거리에서 그들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음식과 한국인을 대할 때의 반가운 마음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일지 모른다. 우리는 말로만 다인종, 다문화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어 교실을 수료한 이주민들에게 수료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글 퀴즈에 나선 외국인들

* 거주외국인, 이런 곳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방 문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 임광빌딩 신관 1층 '다문화가족 고충접수창구'
전 화 :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 |
|-----------------|--------------|
| 서울글로벌센터 | 02-1688-0120 |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 031-481-3301 |
|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 02-2282-7964 |
| 강동 외국인근로자센터 | 02-478-2555 |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 031-434-0411 |
|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 031-594-5821 |
| 천안시 외국인복지센터 | 041-565-5801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02-3141-9494 |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02-6900-8000 |
|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031-838-9111 |
| 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031-475-0111 |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1577-1366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날은 제5기 한국어 교실 수료식이 있던 날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상담반은 지난 6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에서 지역현장민원상담을 했다. 올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상담에서는 특별히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과 장애인' 방문상담을 처음 시도하고,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자원해 법률상담을 나서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었던 지역현장민원상담 현장을 소개한다.

국민의 가려운 곳,
찾아가서 긁어준다

현장민원 * 상담 서비스

| 글 김민주 * 사진 신상은



“아버님,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별거 없어, 저 사람^{부인} 어디 움직이려면 불편해서 만날 택시를 불러야돼. 저거^{전동차}는 배려리 가는데^{교체하는 데} 몇 십만 원 달라고 허고. 그래서 사용도 잘 안 해.”

“필요하실 때마다 장애인협회 차량을 신청하세요. 바로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 그럼 많지.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고 미안해서...”

지역현장 민원상담 일정

| 실시시기 | 9월 | 10월 | 11월 |
|------|----|-----|-----|
| 시 도 | 경남 | 충남 | 강원 |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이동상담반(02-360-2734)으로 문의하세요.

전남 장흥군에서 진행된 지역현장민원상담의 한 장면. 사회복지 담당 상담위원과 군청 담당자, 장애인협회 총무 등이 한 조를 이뤄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한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권익위 이름이 생소하다면서도, 방문 취지를 듣고는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을 풀어놓는다. 상담위원들은 현장에 동행한 군 담당자에게 할아버지의 수급현황 등 추가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장애인 차량 지원’ ‘가사 도우미 파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미안해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할아버지. 상담위원의 조치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집에 직접 찾아와 필요한 도움을 주니 고맙다면서 “서울에 사는 아들이 비싼 보청기를 해줬다”고 은근히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한다.

Tip

지역현장 민원상담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에 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시각.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민원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농림·도로’ ‘건축·도시’ ‘보훈·세무’ ‘민사·법무’ ‘독거·장애’ ‘다문화가족’ 등 6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상담은 이날 오후까지 계속됐다.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늦어져 맘고생이 많았는데, 권익위가 오니 쉽게 해결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 달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동상담반은 이번 지역현장 민원상담에서 총 71건^{보성군 27건, 장흥군 44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중에서 17건은 현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나머지 사안은 현재 처리중이다. 국민을 직접 찾아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의 활동을 보며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의 상징이 될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외국인들의 '한국 살이'는 어떨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 규정과 절차 때문에 휴대전화 개설, 신용카드 발급, 금융거래는 물론 e-메일 계정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이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글로벌센터가 문을 열었다. 외국인들의 서울 정착에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곳에서 앨런 팀블릭 관장을 만나보았다.

서울글로벌센터 관장
앨런 팀블릭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꿈꾸다!

| 글 최미현 * 사진 신상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서울 생활을 즐기고록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센터의 슬로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문제점은 권리에 대한 방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업과 개인의 모든 활동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허가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허가를 얻어내기까지의 절차는 그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기만 하다.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해 이뤄낸 것이 바로 서울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이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영국인 앨런 팀블릭 씨가 초대 관장을 맡고 있다. 1965년 캔자스대학원 유학 시절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났다는 그와 한국의 인연은 유별나고도 진하다.

“서울에서만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직장에 근무했지만 주로 외국인과 한국인 간 교류와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울은 변화를 거듭했고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과거는 남아있죠. 서울의 국제화를 도와 세계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는데, 어느날 주한 외국인 중에서 관장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응모했죠.”

왜 그가 서울글로벌센터의 초대 관장이 되었는지 가히 알만하다. 오랜 세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고충은 물론,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였다.

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서울 생활을 즐기고록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센터의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의 서울살이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것이 서울글로벌센터의 설립 취지다.

외국인들의 동사무소, 문을 열다

올해 1월에 문을 연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불편을 처리해주는 ‘국제 동사무소’와도 같은 곳이다. 생활과 직결되는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



급에서부터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자동차운전면허 등 행정민원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투자 상담, 한국어교실 운영, 의료기관 연계, 온라인 취업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3층에 있는 센터에는 영어·일어·중국어·몽골어·베트남어 등을 구사하는 서울시·법무부·경찰 공무원 및 전문인력 3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앨런 팀블릭 관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유명한 어느 도시에서도 이곳처럼 방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문기관은 없다고 한다. 오직 서울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인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존립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글로벌센터 외 외국인들의 민원접수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국민들의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트도 개설, 외국인들도 인터넷으로 쉽게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화성과 안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도 진행 중에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고치기 위한 ‘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도 시행 중이다. 어찌 보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국내거주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배를 탄 동료인 셈이다. 한국에서 30여 년을 보내며 ‘한강의 기적’을 고스란히 체험했다는 그는 현재, 한국의 파트너로 ‘세계 속의 한국’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코리아 만들기. 그것은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권익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

청렴예찬



안전 신속 친절

신속,
친절,
안전의 선진 관세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

“청렴 실천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 글 김현상 * 사진 신상은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은 세관의 청렴이 장기적으로는 무역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한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세관 행정을 위한 '청렴성' 전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진 행정과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관세 현장을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윤지, 정서희, 김경민 학생이 찾아가 보았다.



긴장과 감탄 사이, 세관의 정수精髓를 느끼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이곳은 바로 인천 세관 전체의 보안을 담당하는 통제실입니다. 세관을 거쳐 해외를 오가는 여행객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혹시 모를 세관원과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외 없이 보안의 테두리 안에 두고 살펴봅니다.”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다는 보안구역인 인천 세관의 배려로 겨우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된 이윤지, 정서희, 김경민 학생.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안이 엄격하다는 통제실 앞에 서자 다들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하지만 잠시 긴장을 풀 여유도 없이 탐방이 이어지니,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인천세관 X-Ray 관독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관독관은 15~20년 정도씩 근무한 베테랑들입니다. 물론 의심되는 부분은 확대를 해보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더 상세히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지요.”

수많은 모니터들 사이로 화물이 지나가고 이를 쳐다보는 세관원들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진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김경민 학생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저 작은 점이 곰의 쓸개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다니 정말 놀랍습니다”하고 관독관들의 솜씨에 감탄했다.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관세청 감사감찰팀 이해진 계장은 이번에는 여행객들이 분주히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여행객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능률한 감시전을 소개해 주었다.

“너무 크거나 사납게 생기면 여행객들이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작고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개들을 훈련시켜 현장에 투입합니다. 만약 폭발물이나 마약류 등을 발견하면 개가 짖지 않고 그 앞에 딱 주저앉습니다. 탐지 임무가 꽤 힘든 업무라 한 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종 쉬게 하지요.”

긴장감 속에 탐방을 마친 이윤지, 정서희, 김경민 학생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번에는 관세청의 내면이자 또 다른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청렴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화물 내 마약이나 폭발물 등을 찾기 위해 투입된 탐지견



견학을 기념하며 촬영. 좌측부터 관세청 청렴팀 김중기 사무관, 정서희, 김경민, 이윤지, 관세청 청렴팀 윤동규,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 주현수, 관세청 청렴팀 이해진



관세청의 주요 청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IT를 기반으로 선도해가는 앞선 청렴 문화

“최근 국내 거주외국인을 통한 각종 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 총기, 마약류 등의 밀수는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 기반도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이것은 전 직원의 윤리의식이 확고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청렴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진 계장은 청렴이야말로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난 2001년 세관별 청렴도 측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3번에 걸쳐 측정된 세관별 청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청렴성 향상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렴성 주요 시책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67편 제작된 3분 분량의 동영상 ‘청백리 아침편지’를 매주 월요일 전 관세 공무원에게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청렴, 공정, 성실 등 올바른 관세 행정 수립을 위한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묶어 책으로 발간, 전 기관에 배포하였다. ‘청백리 아침편지’에서 청백리淸白吏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 이상적인 관료들이 죽은 뒤에 주어진 호칭으로 살아서는 염근리廉謹吏: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라고 불렸다. 관세청의 청렴 문화 또한 바로 이 청백리 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 매월 1회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이 직접 출연하여 각종 청렴 사례를 소개하는 ‘CEO 청렴메시지’도 인트라넷을 통해 발송하고 있기도 하다.

‘청백리 아침편지’와 ‘CEO 청렴메시지’는 모두 UNI-PASS라는 이름하

에 세계에서 최초로 100% 전자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는 나라답게 IT를 기반으로 빠른 청렴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관세청은 지난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 전 기관을 통틀어 1위를 기록했고 2007년도 청렴도 1위청단위기관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렴의 뜻, 국민의 행복으로 국민의 감동으로

“인천 공항 세관을 견학하면서 생각보다 세관에서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밀수를 단속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또 감사감찰팀 안에 청렴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꾸준히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세청의 많은 분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4,4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 청렴 교육 프로그램 ‘바르미’, 청렴을 세관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청렴세관 인증제’ 등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윤지 학생도 “세관 업무에 있어 청렴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견학 소감을 말했다.

지난 4월 관세청은 ‘2008년도 청렴 JUMP-UP 2010청렴성 도약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Zero化’의 원년으로 삼으며 2010년까지 관세청의 청렴도를 Global Top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관세가 국가 경제의 초석을 이룬다는 자명한 이치 속에서 청렴 문화를 이끌며 24시간 불을 밝히는 파수의 역군들. 그 모습이 오늘 더욱 눈부시고 든든해 보인다.🌈



즐거운 세상

즐거운 메시지

오감여행

트렌드 읽기

생활법률 110

해외 반부패동향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ACRC 카툰

Thanks Letter



소비자는 진정 왕인가?

| 글 이영돈 KBS 프로듀서 * 일러스트 홍종모

자신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도 생산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소비자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소
비자란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어느 소비자가 보낸 두툽한 서류봉투를 받았다. 지금까지 다니던 치과가 바가지를 씌웠다고 흥분한 이 소비자는 스스로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비법을 연구해 마침내 인류에 공헌할 거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개발한 제품을 보내왔다. 그 제품이란 구강면역력을 강화하는 치아운동용 나무였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젓가락 비슷한 것을 약 10조각 내고 이것을 죽염 등에 넣어 처리한 것이다. 이 나무를 이리저리 물고 있으면 침이 나오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치아를 누르니까 잇몸이 튼튼해진다는 논리이다. 치과서비스에 열 받은 소비자가 자신의 침해받은 권익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나보고 이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면 20억 원을 주고, 향후 10년간 10억 원을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제품을 30명이 넘는 스태프들에게 씹어 보도록 했다. 사실 그 치아건강기(?)를 상품화하는 데는 일조하지 못했지만, 틈틈이 씹곤 한다.





어떤 소비자는 특수 코팅한 냄비가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방송을 언제 할 것인지를 빨리 알려달라고 닥달을 했다. 다른 방송국에도 제보를 하고 소비자원에도 제보를 했는데 다들 짜고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다. 체크를 해보니 타 방송사에서 비슷한 방송을 했었지만, 제품의 이름이 방송에 공개 되지 않아서 불만인 듯 했다. 모 유명 탤런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하 소비자고발' 사무실에는 이처럼 자신들이 소비행위에서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화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물론 소비자고발 홈페이지와 PD들의 블로그에도 화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온다.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 "불친절하다.", "약을 샀는데 효과가 없다.", "대기업 브랜드의 TV라 믿고 샀는데 A/S가 잘 안 되더라..."

최소한 소비자고발 사무실의 스태프들은 '소비자가 왕이다'란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정말 소비자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돈을 내기 전까지는 왕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돈을 일단 지불하고 난 후에는 소위 양파를 당하기 쉽다.

이들의 불만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당했다는데서 나온다. 즉 자신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 대접을 안 해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가 왕이다'란 말은 '개인의 가치가 존중된다'기 보다는 소유한 재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치가 존중된다'는 뜻일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그 재화 가치만큼만 소비자의 가치가 존중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까?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갈등이 발생한다. 생산자는 생산하는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를 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디어와 판매원을 통해 광고된 내용만을 안다. 만일 기업만이 알고 있는 상품의 단점을 소비자가 안다면 그 상품을 구입할까? 한 개 십는데 3백만 원을 받는 임플란트의 재료비가 5만 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화장 수족관에 거품 제거를 위해 화학물질을 쓰고 이끼제거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산 매트리스가 남이 10년간 쓰다 버린 폐 매트리스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균형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소비자는 불행하다. 소비자의 권익은 실종되어 있다. 소비자고발을 시청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숨겼다는 데 있다.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즉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이상적인 소비자가 존재할까? 자신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소비자란 생각이 든다. 물건을 싸게 사는 것만을 절체절명의 목표로 하는 소비자는 이기적이다.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때 생산자는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생산자가 어린이를 노동에 사용하는지, 노동착취 등 생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소비자고발은 이런 소비자를 '착한 소비자'라고 부른다. 생산자가 살아야 소비자가 살고, 소비자가 살아야 생산자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착한 소비자, 파이팅! 🌱

“돈을 내기 전까지는 왕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돈을 일단 지불하고 난 후에는 소위 양파를 당하기 쉽다.”





연천군의 열쇠전망대를 찾은 중학생들이 철책선을 따라 걸어보고 있다.



강원선의 종착역인 신탄리역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비운의 땅이다. 1953년 7월 27일에 155마일^{248km} 휴전선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각각 2km의 공간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됐다.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907km²(2억 7천만 평). 이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5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무장지대가 생겨난 지 5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비극적 공간은 생태계의 보고로 변신했으며 남북통일의 전진 기지, 평화와 생명의 현장^{PLZ},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안보관광 명소에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KORAIL

도라산
Dorasan | 都羅山

평양 | 서울
Pyeongyang | Seoul
平壤 | 平壤

205km | 56km



장병들의 안내를 받아가며 여행객들이 철책선에 리본을 매달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파주, 연천, 철원

| 글 * 사진 유연태





열쇠전망대 입구 울타리에 걸린 형형색색의 리본들



통일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리본과 태극기들



탱크에 올라타보기 체험은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가고 싶다, 아픔이 희망으로 탈바꿈한 그곳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비무장지대 여행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원도 양구와 철원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 지역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된 곳들이다. 연천군에는 제1땅굴, 철원군에는 제2땅굴, 파주시에는 제3땅굴, 양구군에는 제4땅굴이 있다.

파주시 임진각에서는 개별여행자들을 위한 DMZ 투어를 운영한다. 셔틀버스에 탑승해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등을 2시간 30분 동안 돌아보게 된다. 제3땅굴은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간다. 1978년 6월 10일 발견된 이 땅굴은 총 길이가 1,635m이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52km에 불과하다.

도라전망대에서는 개성 송악산뿐만 아니라 기정동, 개성시 외곽지역, 협동농장, 개성공단까지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거대한 북한의 인공기는 높이 160m로 세계 최고 높이이다. 도라산역 지붕의 디자인은 남과 북이 손잡는 것을 형상화했다. 외벽에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라고 표기한 것은 남과 북은 한 나라이기에 '출입국사무소'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양 205km · 서울 56km'라는 문구가 적힌 도라산역의 이정표는 많은 여행자들의 기념사진 촬영 포인트로 활용된다.

연천군의 열쇠전망대는 개별적으로 방문하기가 어렵고 DMZ관광회사를 통하는 것이 편하다. 이 여행사는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연천군과 함께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DMZ 철책선 걷기와 병영체험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A코스 투어의 경우 군복조끼를 입고 5사단 군부대 견학, 병영식사, 열쇠전망대 관람, 철책선 걷기와 철책에 평화의 리본달기, 초소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방문할 수 있는 부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사병들의 숙소인 내무반, 오락실, 도서실, 세탁실, 샤워실 등을 돌아보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병역의무를 다한 관광객들은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네'를 연발한다.

포대나 전차부대에서는 다양한 무기와 전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탑승해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대당 5억 원, 35억 원을 넘는 전차 **흔히 말하는 탱크** 앞에서는 모두들 그 엄청난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초등학교생이나 중고생들의 경우 듬직한 몸매를 자랑하는 105mm견인포 **최대 발사속도 분당 15발, 사정거리 18km**에 많은 관심을 쏟아 붓는다.



철원 노동당사의 야경



철원평화전망대 전경

군장병과 함께 먹는 병영식사는 잊지 못할 체험이다. 숟가락과 포크를 겸한 신형 수저로 먹는 병영식 **일명 '접밥'**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반찬 투정을 하다가도 거뜬히 식기를 비워내는 모습은 대견스럽게 보인다.

끊임없이 이어진 철책, 두 동강 난 우리의 현실

열쇠전망대는 열쇠부대가 안보교육 및 망향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1998년 4월에 건립한 곳으로 북한의 생활용품과 군사장비도 함께 볼 수 있다. 절도있는 몸가짐을 한 장병의 자세한 DMZ 설명에 이어 열쇠부대 안내 영상물이 상영된다.

전망대 실내 벽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그대 왜 거기 가 셧나'라는 제목의 글이 걸려있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 끊은 155마일 / 여기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굵은 글자로 새긴 표찰 / 천이백아흔두 개가 꽂혀 있는 휴전선! / 그대 왜 거기 가 셧나 무엇이 있기에 거기 가 셧나 / 오늘도 거기서 무엇을 하고 셧나 / (중략) / 오늘 밤 그대 일기장에 큰 글자로 적어놓고 / 옷깃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외워보게 / 내 생명, 조국과 같이 하려고 나 여기 와 셧노라!'

분단국가 청년들에게 짐지워진 아픈 현실인식과 뜨거운 조국애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소임을 노래한 이은상 선생의 글은 열쇠전망대 방문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전망대 바로 옆은 남방한계선 '철책선 걷기 체험장' 이자 '리본달기' 장소이다. "여러분이 매다는 리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반도 통일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라는 열쇠부대 장병의 목소리가 짐짓 현장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든다. 조국 분단의 비극적 장소를 걸으면서 관광객들은 통일을 갈망하고 그 마음을 여러 가지 빛깔의 리본에 담아 철책이며 나무 울타리에 하나씩 조심스런 손길로 걸어 맨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리본도 가

끔씩 눈에 띈다.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 앞을 지나는 3번 국도는 강원도 철원군의 안보관광지로 이어진다.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전적기념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973년에 발굴된 제2땅굴은 총 연장 길이가 3.5km 정도이지만, 여행객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은 입구에서 500m 지점까지이고 그곳에서 300m만 더 나아가면 바로 군사분계선이다.

철원평화전망대는 월정리에 있던 철의삼각전망대가 그 기능을 상실해감에 따라 철의삼각전망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모노레일로 이동한다.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북한군의 모습은 물론이고 평강고원과 궁예궁터도 시야에 들어온다. 🌍

여행정보

| | | | |
|------------|--------------|------------|--------------|
| 임진각 관광안내소 | 031-953-4744 | 제3땅굴 관광안내소 | 031-940-8345 |
|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 031-940-4361 |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 031-839-2065 |
| 철원군청 관광문화과 | 033-450-5365 | DMZ관광주식회사 | 02-706-4851 |

가는길

임진각: 서울→자유로→마정 분기점→임진각 주차장

열쇠전망대: 자유로→문산→37번 국도 연천 방향→한탄강 유원지→3번 국도→대광리역→열쇠전망대

숙소

파주시: 그곳애모텔 031-949-9525
철원군: 썬레저빌 033-455-1350

연천군: 모텔초성 031-835-2610

맛집

파주시: 반구정 나루터집(장어구이, 031-952-3472)

연천군: 약수식당(보리밥, 031-834-8331)

철원군: 기와집(두부요리, 033-452-2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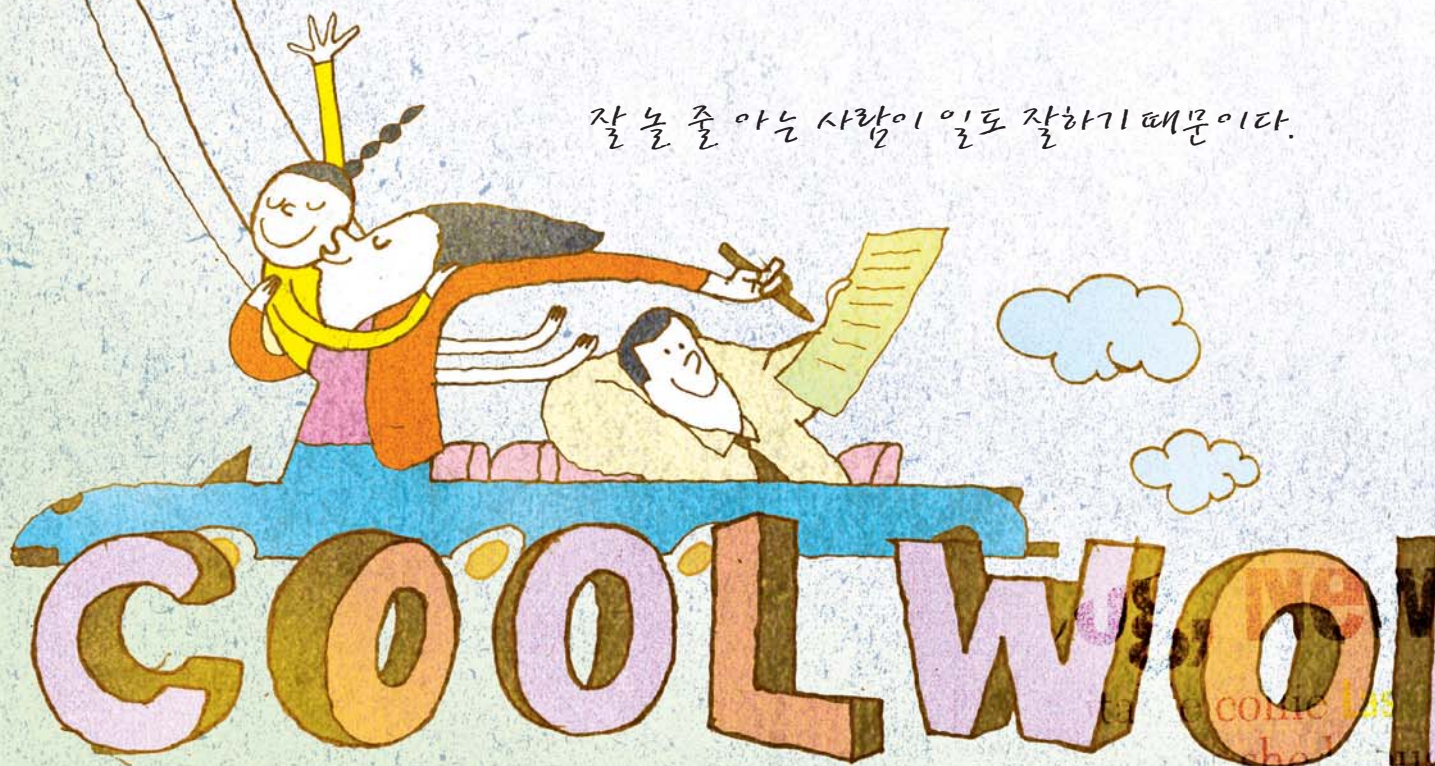
HAS BEEN UNIVERSALLY DESCRIBED as a misanthrope, who has somehow become a court favorite. He serves as a judge, and is a good anti-fellow. He is a good friend to the people. Chief Justice Fred Douglas, President Harry Truman's friend, Felix Frankfurter, as the first Justice Potter Stewart's friends. He might stand Warren Burger, any captain on an ocean liner who enters the real captain steers the ship.

쿨워커Coolworker는 직장 일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드워커Hardworker,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는 워커홀릭Workaholic, 일중독증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웰빙열풍과 더불어 자아성취 욕구가 증가하면서 쿨워커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인생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21세기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직장과 집만 오가는 건조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껍데기를 벗고 세상 밖으로 나와 보라. 이제부터라도 쿨워커가 되어보자.

일만 열심히 하드워커 NO, 취미생활도 열심히 쿨워커 야!

| 글 박주연 뉴스메이커 기자 * 일러스트 홍종모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신경 외과 전문의 김선기 원장^{45세}. 그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그는 2001년부터 토끼띠들의 직장인 록밴드인 '토모스TOMOS'의 드러머로 활약하고 있다. 보컬을 맡거나 퍼스트기타, 세컨드기타, 베이스, 키보드를 각각 연주하는 친구들과 양재동의 한 건물 지하에 모여 신나게 악기를 두드릴 때면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 김 원장은 “대학시절 못 이룬 꿈을 이룬 듯하다”며 “2003년부터는 안양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규합해 또 다른 록밴드를 결성했을 정도로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홍보대행사 P당의 임유진^{31세} PR사업본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안암동 고려대 아이스링크로 달려간다.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커다란 가방에는 무릎과 팔, 가슴 등의 각종 보호대를 비롯한 아이스하키 장비와 유니폼이 들어있다. 직장인 아마추어 아이스하키팀인 ‘파드레스Padres’ 회원인 그녀는 “의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업주부, 작가, 리포터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다”며 “간혹 부상을 입을 정도로 격렬한 운동이지만 이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를 신명나게 하는 ‘썸씽Something’을 찾아보자

일만 목숨 걸고 하는 시대가 갔다. 야근이며 잔업을 불사하는 ‘워커홀릭Workaholic : 일중독증’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지금은 취미생활을 통해 활력을 얻어 직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쿨워커Coolworker가 각광을 받는 시대다.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색다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춤, 연극, 윈드서핑, MTB, 사진 등 눈만 돌리면 폭 빠질 수 있는 놀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물론 어떤 취미생활을 하건 돈은 들게 마련. 산악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는 물론 옷과 헬멧 등 각종 장비가 구비돼야 한다. 춤이나 그림을 배우려고 해도 강의료가 든다. 하지만 돈 드는 게 아까워 또 다른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일단 장비를 구입하는 순간, 의욕이 솟구칠 것이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소극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도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충고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취미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일상의 업무와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생활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쿨워커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소득수준 향상과 웰빙 열풍이 맞물린 결과다. 집단 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세태도 영향을 끼친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행복 조건에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빠질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쿨워커는 워커홀릭 또는 하드워커에 비해 행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당신이 만약 별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하라. 분명 뭔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일단 찾으려면 주저하지 말고 동호회를 가입하든 장비를 사든 당장 실행하라. 당신은 오늘부터 쿨워커가 되는 것이다. 🌈



2008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요양 중 취업이 된 경우 일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간 동안 일 부러 취업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다.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짚어본다.

| 글 황선익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일러스트 양승용

기관장배 축구대회 훈련 중 사고도 산재인정?

챙기느냐, 놓치느냐 정보의 문제로다!





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당한 사람이 일반 회사의 근로자이면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자신의 중대한 실수나 보험금을 노리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소속기관의 축구대회 준비 중 부상은 어찌 됩니까?

경찰서 직원인 A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준비를 위해 일요일에 연습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그만 왼쪽 다리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말았다. A는 경찰청장이 주최하는 경기를 대비하여 연습경기를 하다 다친 것이니만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A가 참여한 경기는 본 대회의 예선을 위한 연습이고, 참여대상도 소속기관 직원 전체가 아니라 경기에 참가하는 직원에 한정되며, 휴일인 일요일에 경기가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는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업무 준비단계라든지 일과시간 후 회식자리와 같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법률공방이 오고 간다. 우리 판례는 업무관련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명을 받고 출장을 나간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야유회, 등산 등 회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인정해준다. 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질병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경찰청장이 본선에 참가할 팀을 선발하게 하면서 대회 기간과 선수단 편성 및 이들에 대한 여비의 지급까지 각 경찰서에 하달한 점, 그리고 해당 경찰서장도 연습을 위해 선수단에 게 근무를 면제시켜준 점 등으로 볼 때 공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똑똑하게 챙기는, 다양한 보상제도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고, 요양 기간 동안 일정한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나 질병을 치료한 후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관련 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 부²지급 결정을 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을 경우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보험 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약관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국제반부패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지난 6월 25일, 전 세계 112개국의 각국 본부(National Chapter)와 공동으로 '2008년 세계부패보고서 - 수자원 분야의 부패' (Global Corruption Report 2007: Corruption in the Water Sector, 이하 GCR2008)를 발표했다.

TI는 보고서를 통해, 수자원 관련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범위와 그 폐해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부패가 기후변화와 식량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이제는 투명성과 참여를 지도원칙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확립, 규제감시의 강화 등을 통해 물 분야의 반부패 실천을 시작할 시기를 주장하고 있다.

위켓 라벨(Huguette Labelle) TI 회장은 "수자원 분야의 부패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이지만,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을 다루는 지구적 정책 주도그룹이 아직까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는 세계로 하여금 방대하고 종합적인 지구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수자원과 관련한 부패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획들의 기반은 흔들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자원 분야 부패가 수십억 인명 위협한다

일러스트 양승모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분야의 부패는 식수와 위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20억 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수자원 공급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예산,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 등 수자원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나이로비, 마닐라 등의 저소득 국가가 뉴욕, 런던의 시민보다 비싼 수도요금을 지출하고 있어 가장 큰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또 선진 개발국에서도 부패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밀라노, 애틀란타, 스웨덴 등에서의 수자원 공급 계약의 입찰과 경매에서의 담합과 뇌물, 시카고에서의 수도관련 예산의 정치자금 유용이 대표적이며, 한 다국적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8조 달러 규모의 대형 수자원기반공사 프로젝트 입찰에서의 부패도 폭로되었다.

TI는 해결방안으로 3개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투명성과 참여를 수자원 분야 거버넌스의 지도원칙으로 수립하라는 것이다. 투명한 예산책정과 공개적인 정책 결정, 정부 계약에 대한 공개와 감사 등의 투명성과 시민참여가 청렴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TI는 규제 감시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 효과적인 규제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감독 기능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들고 있다. 🌍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gency, announced^{Global} [Corruption Report 2008: Corruption in the Water Sector](#)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Chapters from 1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June 25, 2008.

GCR 2008 addresses the scope of corruption prevalent in the water sector and its harmful effects, showing that corruption affects climate change and food shortages. It also insists that it is time to conduct anti-corruption campaign in the water sector, such as establishing governance with guiding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Huguette Labelle, president of TI, commented that “corruption in the water sector boils down to the issue of governance, and a group of leading global policy makers, who deal with sustainabl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od and energy security, has not yet paid enough attention to corruption. Not it is time for change.” He also added that climate change requires the vast and complex global-based governance. If water-related corruption can’t draw attention, the foundation of plans will remain unstable.

GCR 2008 shows that corruption problem is most acute i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More than 1 billion people live with inadequate access to drinking water, and over 2 billion people are exposed to unsanitary water. Corruption is widespread in areas ranging from planning water supply policy to water supply system as a whole, including budge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waterworks facility. Low-income households in Jakarta, Nairobi, and Manila suffer most, as they pay much more for water than London citizens do.

The evidence of corruption was also found in developed nations. The examples include collusion and bribery in bidding and auction for water-supply contract, as well as misappropriation of waterworks-related budget in Chicago. In addition, corruption was revealed in a multinational company’s bidding of 8 trillion worth of project led by 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in South Africa.

TI came up with 3 recommendations to address corruption issue in the water sector. First of all, it recommended incorporat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to the guiding principle of governance in the water sector. TI commented that integrity will be improved by public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such as transparent budget appropriation, open policy decision, and disclose and inspection of a government contract. The second recommendation is to tighten supervision of the water sector. In particular, it calls for setting up an effective supervision agency, strengthening the roles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Lastly, it calls on nations to guarantee fair competition and responsibility in water-related businesses. 

Corruption in the Water Sector Endangers Billions of Lives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본인과 그 유족에게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유족들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보호, 의료비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얼마 전 40년 전에 군대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주부의 사연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과연 그녀는 40년 전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뒤늦게 찾은 남편의 명예... 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 인정

지난 3월 전라도에 사는 김 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40여 년 전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지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가벼운 증상으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당일 사망하였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에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고인의 육군 전사망자 관련 자료상 ‘변사’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김 씨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 남편의 경우는 통신가설병으로 근무 중 경환자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 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로, 당시 군의관 진단란에도 머리와 뇌 손상이 큰 걸로 기재되어 있고,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그것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사적인 활동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국가유공자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숨진 한 사람의 희생이 40여 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Ti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 사망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그 사고가 사적인 활동이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종종 민원인의 감사표지가 접수됩니다.
 딱한 처지의 일을 조사관이 맘흘리며 노력해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전하는 훈훈한 감사편지를 담았습니다.

“당신의 땀방울과 우리의 간절함이 모여 해냈습니다!”

도로수지원민원과 박영준 조사관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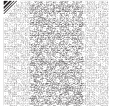
국민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임진옥 외 47세대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신청일자 내에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성북구청에서는 2007년 5월 30일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공문을 48세대 주민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오다가 2008년 1월 15일자로 귀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꿈도 희망도 없이 좌절과 시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나게 되면서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듯 희망이 보이더군요. 친절함은 물론, 예리한 통찰력과 허점 없는 실사로 우리 48세대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48세대의 목숨을 구제해준 대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성북구청에 권고해 주셨기에 성북구청에서도 2008년 4월 27일자로 입주권 권리회복을 시켜준다는 통지문을 48세대 주민 모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 의결해주신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일선에서 제일 노고가 많으셨던 박영준 조사관님께 더더욱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반드시 이뤄내리라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국민의 햇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문동 삼선상가 아파트 철거민 임진옥 외 47명 일동



“이보다 더 멋진 순 없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

도시민원과 여상수 조사관님께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사정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러려니 하고 잊고 있던 중 뜻밖에도 권익위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과의 직접상담, 절충을 위해 방문할 것이니 가능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전 설마하면서도 결국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막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 많고 넓은 구청 사무실에서... 저는 그 일의 결과나 구청 공무원들의 구태 의연한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까지 내려와 어찌 보면 남인 한 사람의 고충을 위해 세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당함을 설득해가는 모습을 보고 내심 '야! 이거 희한한 사람 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 한사람(기업)을 위해 생전 처음 보는 공무원이 여전히 방어적 자세와 절벽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모습에 묘한 카타르시스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공무원들이 반만 되면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최대 걸림돌이라 여겨온 공직사회의 터무니없는 경직성과 권위 의식 그리고 부패, 게으름에 질려 이민을 생각해 오던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그 불꽃 튀기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여상수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지십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김정섭



ACRC NEWS

한겨레
THE HANJERE

2008년 6월 25일
28면 (인물)

6·25참전 소년·소녀병 '현충원' 건립

6·25 참전 소년·소녀지원병(사진)의 넋을 위로하는 위패 봉안소와 충혼탑 등 현충시설이 세워진다.

권익위원회는 23일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에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해 병적과 전사에 기록하도록 하고 현충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로부터 보상·예우를 받는 소년·소녀병은 모두 2만2165명으로, 이 가운데 4185명은 사망하고 1만



798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세계일보

2008년 6월 30일
04면 (종합)

전화민원 안내도 '얼리버드' 서비스

권익위, 콜센터 상담시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

정부의 전화 민원안내에도 '얼리 버드(Early Bird)'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평일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침 8시 상담은 공무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빨라 이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

는 공공기관의 행정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꼭 필요로 할 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정부 전화민원 상담시간을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로 늘린 바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현대일보

2008년 7월 02일
06면 (지역)



방글라데시에 반부패 기술지원

권익위, 실무 매뉴얼 제공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방글라데시 반부패 기술지원에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유엔개발계획 콜롬보지역 사무소(소장 Omar Noman)와 공동으로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기술지원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 반부패 제도를 위한 실무 매뉴얼

을 제공하고, 방글라데시 관련 공무원 연수를 연 1회(2주, 10명당 규모) 실시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UNDP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은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UNDP와 긴밀하게 협의,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현대일보

2008년 7월 07일
02면 (종합)

온라인 '국민신문고' 초등 교과서에 수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정부민원과 정책제안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지난 1일부터 전국 각 초등 학교에 배포예정인 4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포털 시스템이다.

이번에 수록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조선

태종 때의 신문고와 비교한 '현대판 신문고'로 '국민이 직접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창구로, 억울한 일을 언제든 지 알릴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어릴때부터 인터넷 활용이 자유로운 만큼 초등학교생들에게도 국민신문고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 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서울신문

2008년 7월 09일
06면 (정치)

"119구급대, 환자 사망판단 안돼"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사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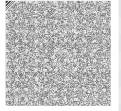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응급환자가 숨진 게 확실해도 의사의 '사망선언'이 없는 이상 구급대원이 환자의 구조나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소방방재청 등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사망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 선언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분리, 부패돼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회복의 가능성을 존중해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의 한 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4월 오토바이와 승용차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맥박과 호흡이 없자, 환자 이송을 생략하고 철수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생기회를 잃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이송범위 지침을 마련 중"이라면서 "사망시 경찰에 의한 현장보존 등 이송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옮기는 게 맞는 만큼 과실치사 혐의 등 배상책임을 국가가 물 수 있다"며 권고를 인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東亞日報

2008년 07년 28일
06면 (종합)

수입차 수리비 거품 뺀다

정부, 부품가격 공개... 인하 유도하기로

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부품 가격과 정비에 걸리는 표준시간을 공개해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의 대물담보 가입 금액과 대물사고 특별할증구간을 세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정비 표준 작업시간표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산차만이 대상이다.

또 소비자들이 정비 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입회사와 부품 수입업자 모두에게 가격을 포함한 부품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날 보험개발원도 2, 3개 부품 수입업체를 지정해 이들이 보험사 협력 정비공장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산 차 부품 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업체로 지정돼 협약을 맺은 부품 수입업체는 합리적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유통구조, 적정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국내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도 부품의 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자동차 관리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개인승용차)의 대물담보 금액 중 5000만~1억 원 구간을 1000만 원 단위로 세분해 계약자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東亞日報

2008년 07년 28일
08면 (정치)

공공기관 부패지수 평가때 부킹-콘도예약 청탁도 체크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에 골프장이나 콘도 예약 때 각종 편의를 요청했는지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주요 항목인 부패지수 산출 시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항목을 포함시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이 체감한 '외부 청렴도'와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로 나뉘어 이뤄진다.

이 중 외부 청렴도 평가의 주요 항목인 부패지수에 금품과 향응 외에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 시 편의 요청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정상적인 골프 부킹과 콘도 예약의 경우는 부패지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377개 공공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해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고 171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평가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부 및 내부 청렴도를 모두 측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60개 기관에 대해선 종합청렴지수를 산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충청신문

2008년 7월 14일
06면 (지역)

엑스포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본격화

(주)스마트시티 개발이익 사회환원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14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가칭 '대덕초등학교 엑스포 분교' 학교용지 기부증서 전달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엑스포지구내 공동주택개발사업시행자인 (주)스마트시티(대표 정철도)에서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학교용지 9084.4㎡(공시지가 약 117억원)에 대한 기부증서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날 공동주택개발로 인

한 사업이익을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환원한 모범사례라고 치하하며, 대전 교육가족 및 시민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한, 최근 서남부지구 등 학교설립 문제가 대전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학교설립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가 확보됐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대덕초등학교 엑스포분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찬구 기자

서울신문

2008년 7월 17일
36면 (문화)

결혼이민자 '국민신문고' 두드리세요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다문화가정 권익 보호 상담 창구 운영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구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8월 말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 권익위의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속 피해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다. 결혼이민자가 12만 6000명에 이르렀다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해 우

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약 11%를 차지하고, 농어촌 결혼에서는 약 40%가 국제결혼을 했다. 권익위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현장 상담 등 모든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현장 민원상담을 함께 하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1층 상담 안내과에는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하

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체류연장, 귀화 신청, 가족 초청 등 행정절차와 제도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또 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의견과 사회통합교육, 학교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등의 의견도 듣는다. 결혼이민자가 결혼중개업소

의 허위·과장 광고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적 취득까지 4년이 걸려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고, 이 기간에 자신

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생활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가 행정적 불편사항을 검토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학 기자 shkim@seoul.co.kr



독자 코너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이달의 QUIZ

1. 국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 직접 안내하거나 해당기관으로 중계해주며, 외국어 통역서비스로 외국인들의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민원콜센터의 전화번호는?(힌트 4페이지)

▶ 국번 없이 000

2. 직장 일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컫는 유행어로, 일만 열심히 하드워커와 반대말인 이 말은?(힌트 30페이지)

▶ O워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9월 10일)
독자퀴즈는 본문 내용 중에서 출제되며 다음호에 정답이 게재됩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으로서 각종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이 ㉠ 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 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 필요 없고 과도한 규정 ㉣ 정 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등을 통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패를 유발할 경우, 우리 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이번 기간에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 분야의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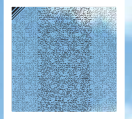
운영기간 : 2008. 6. 30 ~ 8. 31

문의 : 행정규칙개선팀 신청회 02-360-6626, 6815 Fax. 02-360-6872

sjhee0129@acrc.go.kr

〈희망블룸 UP〉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 수기를 e-mail(junmin79@acrc.go.kr)이나 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다양한 체험수기로 이루어집니다.

〈Thanks letter〉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의 감사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깨끗한 청렴의 바람, UCC로 불어라~"

한 사람의 부패가 국가 전체의 자원을 낭비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깨끗한 청렴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참신하고 기발한 청렴생활실천 UCC를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여러분의 반짝이는 UCC를 보여주세요~!!

- **응모주제** -사회 전반의 부패예방·청렴문화 전파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반부패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반부패 청렴을 핵심소재로 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감동적인 이야기, 직접 겪은 이야기, 패러디 등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 인원 수 제한 없음)

- **응모기간** 2008.07.21(월) ~ 2008.09.30(화)

- **응모방법** 다음 티비팟(<http://tv팟.daum.net>)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한
영상 업로드 진행 (심사 이후 당선작에 한하여 원본 수령 예정)

- **작품형식** UCC 영상-30초~3분 내외 분량 동영상
640X480px 이상, 100mb 이하
avi, wmv, asf, mpeg, mov, dv, qt 파일 형식

- **시상내역** ○대 상 1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상장 및 상금(100만원)
○최우수상 2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상장 및 상금(각 50만원)
○우수상 3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상장 및 상금(각 30만원)
○장려상 4명: 상금(각 20만원)
○참가상 20명: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기 타** 출품작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daum.net/cleanwave>



